

2021년 3월 1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 장성현(044-201-7245), 사무관 이야문(7257)
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반장 이기중(044-201-2551), 서기관 황성철(2555) / 제공일 3월 12일(총 6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지난 3.4.~3.11.(8일) 간 철원, 고성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7건 확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과정에서 수거·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분변 및 포획개체 시료를 검사한 결과, 지난 3월 4일~3월 11일(8일)간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7건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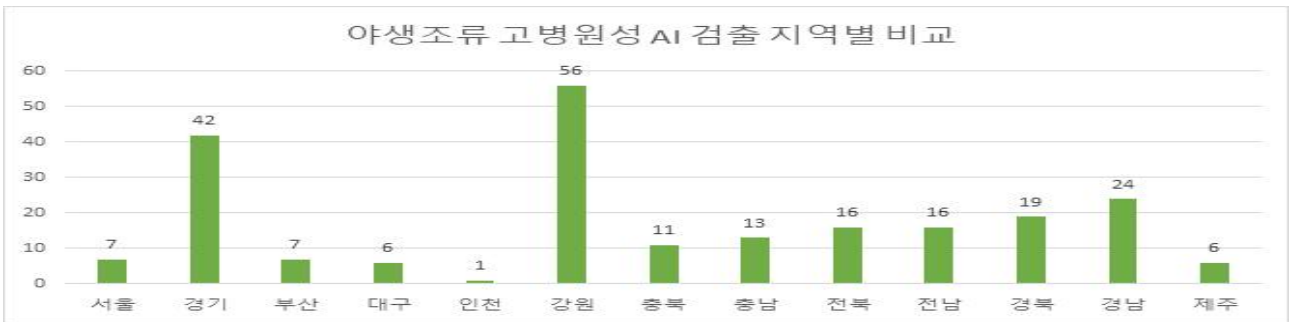
구분	장소	수거·채취일	확진일	
폐사체 (7)	쇠기러기	강원 철원 산명호	02/25	03/04
	쇠기러기	강원 고성 송지호	02/26	03/04
	쇠기러기	강원 철원 토교지	02/26	03/04
	쇠기러기	강원 철원 토교지	02/26	03/04
	쇠기러기	강원 철원 토교지	02/27	03/06
	쇠기러기	강원 고성 송지호	02/27	03/06
	쇠기러기	강원 고성 송지호	03/04	03/09

- 지난해 10월 첫 발생 이후 올해 3월 11일까지 누적 건수는 224건이며, 검사 대상별로는 폐사체 171건(76%), 분변 34건(15%), 포획 개체 19건(8%) 순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강원(56건), 경기(42건), 경남(24건), 경북(19건), 전남·전북(각각 16건), 충남(13건), 충북(11건) 순이다.

<'20/'21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검출 지역별 비교> (단위 : 건수)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누계
폐사체	6	28	4	5	1	51	9	5	7	12	18	22	3	171
분변	1	8	2	1	0	5	2	3	4	2	1	2	3	34
포획	0	6	1	0	0	0	0	5	5	2	0	0	0	19
소계	7	42	7	6	1	56	11	13	16	16	19	24	6	224

※ 대전, 광주, 울산, 세종에서는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검출



□ 3월 1주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건수(수거·채취일 기준)는 전주 대비(2월 4주 15건) 대폭 감소하여 1건 발생하였다.

* (3월 1주 차까지) '16/'17년 동절기 63건, '20/'21년 동절기 224건

○ 감소 원인으로서는 강원 철원(토교저수지) 및 고성(송지호*) 등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역의 야생조류가 기온 상승에 따라 서식지를 분산·이동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토교저수지 감염개체와 접촉·감염된 철원평야 쇠기러기 일부가 송지호로 이동(토교저수지로부터 약 100km 이격)하여 폐사한 것으로 추정

□ 환경부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철새이동 추적 결과(국립생물자원관), 큰고니(3.8, 나주→중국 랴오닝성(652km)), 고방오리(3.7, 경북 영주→경기 연천(187km)) 등의 북상이 확인되었으나, 겨울 철새의 완전한 북상이 이뤄질 때까지 긴장감을 갖고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철새도래지 및 소하천 등에 대한 예찰을 지속 수행하고,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농장 진입로에 대한 소독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 장성현 환경부 야생조류 AI 대응상황반 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예찰을 통한 폐사체 조속히 수거 등의 조치를 시행 중이며, 상당수 철새가 국내 남아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철새서식지 출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이기중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장(국내방역반 반장)은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가금농장 추가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 “가금농장은 외부 사람·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금지하고, 축사 진입 전 장화 갈아신기, 생석회 벨트 구축, 전실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국민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AI) Q&A

Q 1 조류인플루엔자(AI)는 어떤 질병인가요?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닭,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전염되는 호흡기 질병

Q 2 바이러스의 생존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분변에 오염된 AI는 4 °C에서 35일간 생존, 호수 등 물에서는 22 °C에서 4일간, 0 °C에서 30일간 생존
※ 가금육은 75 °C에서 5분간 가열시 바이러스 사멸

Q 3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토양, 물, 분변 등을 신발, 의복, 차량바퀴 등으로 직접 접촉하는 것이 주된 전파 경로

Q 4 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

AI 감염 조류는 무증상 돌연사, 설사, 구토, 쇠약, 행동이상(머리 기울임, 머리·목 비틀기), 보행이상(기립 및 날개짓 불능) 등을 보임

조류시 신고요령

이럴때 신고하세요

-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 이상행동을 보이는 야생조류 발견 시
- ※ 감염이 의심되는 조류 발견 시 접촉하지 말고 즉시 신고



여기에 신고하세요

- 시·군·구 환경과
- 유역(지방) 환경청 자연환경과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062-949-4371/4321)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 수칙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국민 행동요령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동 기본원칙



시 발생으로 인한 '출입통제' 지역 출입 금지

불가피하게 시 발생지역 방문시



여벌의 활동복, 신발, 신발커버, 모자 등 준비
활동 후 탈의 및 비닐로 밀봉

※ 일회용 보호복(방역복 등) 착용 권장(일회용 물품 폐기, 나머지 세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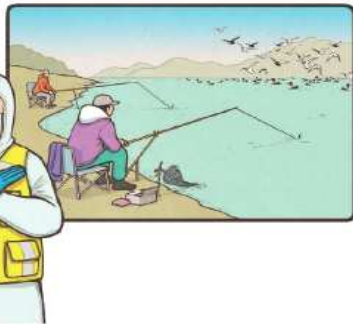
시 발생지역을 다녀온 후



철새서식지에서 벗어날 시 신발세척·소독 및
물과 비누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 발열 등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 발생 시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NO!



저수지, 하천 등 철새가 무리 지어 있는 지역 및
시 발생지역에서 낚시 금지



이동시에는 분변, 깃털 등을 밟지 않도록 주의

※ 분변에 노출 된 경우 즉시 비누와 물로 세정



철새서식지 출입 후 가금(닭, 오리 등)농가 방문 금지 및
관련 종사자(농가 종사자, 사료·분뇨 운반자 등) 접촉 금지

축사 밖은 바이러스 오염지역!



바이러스는 **차량·사람·물품·야생동물**에 의해 유입됩니다



① 농장 주변 생석회 도포

② 농장 마당 소독 및 차량 2차 소독

기온이 높아 소독 효과가 큰
매일 오후 2~3시 추가 집중 소독

③ 축사 내부 소독

전실과
축사 바닥 매일 소독

④ 오염원 축사 유입 차단

[사람] 축사 전실 방역수칙

장화갈아신기 발판소독조 사용

손 소독 방역복 착용

[장비·물품] 외부 방치금지(파레트, 난좌, 물이망 등) 반입시 소독

[야생동물] 쥐, 고양이, 조류 등 축사·퇴비사 차단망 설치, 틈새 메우기, 쥐 제거

“방역기본수칙 실천이 당신의 가축과 재산을 보호합니다”